

# Sermon of the Week: From Hiding to Wholeness in Christ



**Passage:** 1 Peter 2:22-25 (ESV)

**Date:** December 7, 2025

**Pastor:** Dong Suk Chung

After Adam and Eve were deceived by Satan and ate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death entered immediately. They realized that they were naked, so they covered themselves with fig leaves. Even then, it was not enough, and they hid among the trees of the garden to avoid the presence of God. Like Adam and Eve, people do not want to keep God in their mind and hearts. They do not want to be exposed, so they hide themselves behind the possessions of this world. Still, God came looking for the hidden Adam. He killed an animal and clothed them with garments of its skin. This was a foreshadowing of the day when God would send Jesus Christ into the world, put to death the very essence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sin itself—on the cross, and through His resurrection come to dwell within us. As a result, we have become children of God and new creations in Christ. There is no longer any reason for us to hide. "For you were straying like sheep, but have now returned to the Shepherd and Overseer of your souls" [1 Peter 2:25]. This verse defines our position: as people who have already returned to God.

When we know Jesus only with our knowledge, we may think of Him as a great and admirable person. But when revelation comes through the Spirit and we see that Jesus and I are completely one, we come to know that everyone who is in Jesus Christ is a new creation. This is why the apostle Paul said, "From now on, therefore, we regard no one according to the flesh" [2 Cor 5:16]. We once knew Christ according to the flesh, but now we no longer do. We also no longer see ourselves as the old self, but as God's new

people. This verse speaks of how precious the position of a believer truly is: one who has received the life of the Lord through salvation, whose old self has died, and who has become new through Jesus.

If we have been born again, we cannot help but live boldly, because every problem of our spirit, soul, and body has been legally resolved through the cross of Jesus. Now our life is one of spiritual restoration—moving from the saved spirit into the soul, and from the soul into the body—by putting to death the deeds of the body by the Spirit. Ephesians 2:8 says,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which refers to the salvation of our spirit, while Philippians 2:12 says,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hich refers to the salvation of the soul that needs to be accomplished. Our lifelong journey is to be transformed as sons in spirit, soul, and body through faith in the Son of God. Our desires, our time, and our energy are to be fully devoted to this work of salvation.

Yet we still spend our days worrying about what we will eat, what we will drink, and what we will wear. Jesus clearly said, "Do not be anxious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or what you will drink, nor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put on" [Matt 6:25]. He promised that if we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us. Still, we worry because we stubbornly remain stuck in the position of having eaten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Although we cannot create even a single grain of rice, we live bound by anxiety and worries. Wasting our time and energy this way is a foolish way to live.

In the same way, our distorted thoughts and interpretations about sickness, human reasoning and speculation, negative emotions, and judgments about others' shortcomings all come from Satan, the world, and the flesh. We are being deceived when we accept these things as our own. Instead, we must make it our foundation and faith that we are already people who have been born again in Jesus—

people whose spirit, soul, and body have been legally and completely resolved. I have already been cleansed by the blood of Jesus, and the Word,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is true. If there is sickness for a moment right now, it may be because we have been deceived by not knowing this truth. Yet it can be driven out by faith. When we firmly hold our position that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on the cross are truly our life, our spirit, soul, and body will be restored to wholeness. As we hold fast to this faith and move forward in praise, the verse, "It will be done to you according to your faith" becomes reality in our daily lives.

Scripture declares that we have already been made complete in Christ and that is our position. Since we have already become new creations in Christ, we must use our emotions and feelings in Christ to express the word of truth. No matter what difficulties or circumstances we face in this world, our identity and position—established by God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never change. Living a life of faith that trusts the Lord to work is essential. Even when doubt arises, as the old self is dealt with and put to death, the fullness of the perfect Lord who dwells within us will flow out more and more.

The God who created us in His image and likeness has a great and purposeful plan for us. When my own thoughts, self-judgments, and self-centered identity are put to death, the Jesus who has come to live within me is expressed, and the Lord Himself does the work. Therefore, we must not trust the flesh. Instead, we must declare, "I am a child of God. I am a redeemed child, washed by the blood of Jesus. My spirit and body have already been made complete." As we praise with this faith and live a life through which the Lord overflows, may His life be fully revealed through us.

# 심니소식

## 나성교회



## 심성교회

12월 21일, 2025년

NASUNGCHURCH.NET

86 호

###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2-25절

**날짜:** 12월 7일, 2025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에 속아 선악과를 먹은 후, 죽음이 즉시 들어왔고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신을 드러내 보이길 원하지 않고, 세상의 소유물들로 자신을 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은 아담을 찾아 부르셨고,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선악과의 본질, 곧 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벧전 2:25).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 때는 그저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를 통해 예수와 내가 완전히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새 피조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고후 5:16)라고 말한 것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옛 사람이 아닌 하나

님의 사람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거듭남으로 주의 생명을 얻은 성도의 위치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영·혼·몸의 모든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영에서부터 혼으로, 그리고 몸으로 회복되어 가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말씀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이며, 빌립보서 2장 12절의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평생 영·혼·몸이 아들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내게 있는 정욕과 시간은 이 구원을 이루는 일에 다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 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까 염려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무엇을 먹을 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 까 염려하지 말라"(마 6:25)고 말씀하셨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여전히 선악과를 먹은 위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쌀 한 톨도 만들 수 없으면서 걱정과 염려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은 미련한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 생각과 추측, 부정적인 감정, 혹은 배우자의 부족한 모습에 대한 판단은 모두 사탄과 세상, 육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미 예수로 거듭난 사람, 영·혼·몸이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의 기초이자 믿음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

음을 얻었나니"라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지금 잠시 병이 있다면 그것은 이 진리를 모르고 속았기 때문일 수 있으나, 믿음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확실히 나의 생명이라는 이 위치를 굳게 지킬 때, 내 영·혼·몸은 온전함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너의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감정과 느낌을 말씀을 표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성부·성자·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의 정체성과 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 중요하며, 의심이 들 어와도 자아가 처리되고 죽어 갈수록 내 안에 계신 온전하신 주님이 점점 흘러나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과 내에 대한 판단, 이 자아만 죽으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표현되며 주님께서 친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믿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피로 구속된 자녀다. 영과 육을 이미 온전케 해 주셨다"라고 선언하며, 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흘러넘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

# 중보기도

##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유방암 항암치료와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안현숙 권사 딸)**
-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과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요청합니다.**
- 고원창 집사** 여호수아회 **항암 치료중에 stroke으로 인한 치료 후 재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이 심하고 호흡이 어려우신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 이시용 장로** 모세회 **담석수술과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폴리 자매** 3여선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최희정 집사**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 김옥경 집사** 82세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 61세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 47세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현주 집사**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연희 집사**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엄지 발가락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발에 힘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윤춘자 집사** 81세, 양주구역 **허리협착증 수술을 하였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25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

---

---

---

---

---

---

---

2. 거듭난 우리가 담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제 어떤 일에 우리의 정욕과 시간을 써야 합니까?

---

---

---

---

---

---

---

---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

---

---

---

---

---

---

---

## 주간소식

-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시 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행정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예배 후에 각 남녀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선교회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주는 성탄절 주간입니다. 금년 성탄절 예배는 이번주 12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 지난달에 있었던 요한계시록 사경회 말씀 CD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로비에 준비한 신청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위원회 선교부에서는 12월 27일 금주 토요일 LA 거리 선교사역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아침 6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참석이나 donation을 원하는 분은 황찬익 형제에게 연락 바랍니다.
- 다음 주일에는 2025년도를 결산하는 사무연회가 있습니다.
- 금주 성탄절 주간 12월 25일과 26일 교회 사무실은 close합니다.

##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